

농구부 홈 2연전 1승 1패, 목표 4위까지 건국대 · 중앙대 넘어야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 6위에 랭크됐다.

지난달 29일 명지대를 상대로 64-61로 승리를 챙겼지만, 지난 6일 연세대에 71-90으로 패배했다. 다만, 중국 Sias대학 초청 대회로 해외에 다녀온 피로도를 감안하면, 귀중한 1승을 챙긴 셈이다.

대학농구 U-리그는 정규시즌 8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14경기에서 8승 6패를 기록하며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다만, 3위 건국대를 상대로 8강에서 76-77로 패하며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현재 순위는 6위지만, 4위를 노려 불만하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나란

히 9경기 전승을 기록 중이고, 그 아래 성균관대가 7승 2패 단독 3위로 3강 구도가 잡혔다. 우리 학교는 4위 중앙대, 5위 한양대와 같이 5승 4패를 기록 중이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시즌 종료까지는 7경기가 남았다.

올해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김현국 감독은 “작년에는 4학년 없이 경기했기 때문에 전력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올해는 꼭 결승까지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 변수는 역시 부상이다. 김 감독의 걱정은 무엇보다 에이스 포워드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부상이었다.

농구부는 배 선수가 지난 4월 건국대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배 선수는 “부상 이후 아직 100%는 아니지만 재활을 꾸준히 해서 70% 정도 올라왔다”고 전했다.



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사진=농구부 프런트 제공)

그래도 최근 승리한 명지대전에서 30분 35초를 소화하며 13득점 10리바운드 4어시스트 활약으로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 연세대전 역시 27분 55초를 뛰며 9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올렸다. 돌아온 에이스에 더해 선수들이 골고루 골 맛을 보고 있다.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패

했지만, 배 선수에게만 득점이 쏠리지 않고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향후 분수령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건국대전, 9월에 있을 중앙대전이다. 순위가 맞물려있는 팀과의 경기를 확실히 잡아야 플레이오프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선수는 “초반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잡아서 지금부터는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며 “당장 있는 건국대전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경기고,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축구부 시즌 첫 4경기 무패 “정규리그 무패 우승 목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축구부가 ‘2025 KUSF 대학축구 U-리그’ 4권역에서 첫 4경기 2승 2무를 거두며 6개 대학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강원한라대와의 첫 경기 2-2 무승부를 시작으로 용인

대전 2-2 무승부, 전주대전 1-0 승리, 광운대전 2-1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승점 9점을 쌓은 1위 울산대와의 승점 1점 차다.

2020년대에 들어와 축구부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정규리그 성적이 좋은 팀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에 최근 4년 연속으로 나서지 못했다. 2017년부터는 4년 연속 왕중

왕전에 진출했고, 마지막 왕중왕전이었던 2020년에는 정규리그 9팀 중 3위로 진출해 4강까지 올랐던 강팀이었지만 흐름이 꺾였다.

올해는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본다.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올해 U-리그 정규리그 무패 우승과 오는 추계대회 우승이 목표”라며 “왕중왕전에 진출해 부상

자들과 함께 왕중왕전을 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의 방향 아래 하나 된 뜻으로 경기하는 단합력이 초반 상승세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축구부는 5-2-3 포메이션을 사용 중이다.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높은 위치 선정을 통해 공격에서는 수적 우위를 만들고, 수비 시에는 10명 모두 약속된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 중이다. 이 전술로 4경기에서 5골을 넣고 2실점을 내주며 +3이라는 좋은 득실을 기록 중이다.

전주대전 결승골로 팀의 첫 승을 이끈 공격수 강산(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새로운 코치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팀을 바꾸려고 하시는 게 보였다”며 “우리 또래부터는 프로팀에도 계속 가다 보니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정규리그가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하지만, 시즌 초반인 현재 1위 울산대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승점 차는 1점뿐이기 때문에 오는 13일 열리는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 선수는 “리그 1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기를 통해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 선수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